순천, 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공간 조성

장기 방치 점포 팝업 스페이스 조성

오는 17일까지 임대희망 점포 모집

순천시는 장천동 터미널 술집골목 인근에 늘어나고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시킬 창업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터미널 주변에 장기 방치된 빈 점포를 임대 후 리모델링해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팝업 스페이스' 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팝업스페이스' 는 로컬푸드 또는 수제맥주등 주류 판매업을 테마로 창업지원과 시제품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공유경제형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예비창업자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식음료를 개발·판매하고 수제맥주 제조·교육 등 인큐베이팅을 거쳐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순천시는 창업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버스터미널 뒤편인 장천대전머리길 인근에 2년간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빈점포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규모는 1개층 면적 33㎡(10평) 이상이다.

시에서는 '팝업스페이스' 를 기획하면서 지역 주민과 예비창업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재생건축 교육과 업사이클링 교육을 통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공간재생을 해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양효정 도시재생과장은 "창업공유공방이 예비창업가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일자리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되고 이러한 공간들이 쇠퇴한 골목이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팝업 스페이스' 조성 예정지인 장천동 일대 전경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61-749-3608)로 문의 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곡성, 지역유관 기관 전통시장 자매결연

곡성군은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와 곡성경찰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가 최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지역 상가 및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곡성경찰서 직원들은 매월 3일과 8일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곡성구례지사는 매월 셋째 주 장날을 '전통시장 가는 날' 로 정했다. 직원들은 장날에 시장을 찾아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서게 된다.

곡성군은 이러한 움직임이 마중물이 되어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모두가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농업인을 살리는데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군에서도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화훼농가 돕기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꽃 나눔 행사, 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준 기관에 감사하다며 유관기관과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정승호 기자

나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접수

오늘부터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이후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5일 이상 근로를 못한 자(무급휴직)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 날수 기준 총40일(약2개월)로 1인 일 2만5천원을 책정, 월5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훈련이 중단된 교육생들은 최대 24만원(1인당 월 12만원 2개월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13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문의)하면 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유형은 교육 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 관련 근로자(연극, 영화 종사원 등), 운송 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가구중위소득 100% 이내를 우선 지원하며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전라남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대응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이라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지원으로 고용·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군,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구슬땀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 해안관광지 해양쓰레기 수거

영광군은 지난 7일부터 3일간 백수해안도로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안관광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50톤을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영광군, 백수읍, 백수읍 청년회가 합동으로 영광군 대표관광지인 백수해안도로의 경관을 저해하는 폐어구, 부표 등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다.

백수해안도로는 작업 장소까지 거리가 멀고 경사가 심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지역으로 백수읍 청년회가 큰 도움이 되었다.

영광군은 올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 바닷가 환경 지킴이 등 해양 보전 분야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제로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광지 주변해안가와 방문객이 많은 해역을 중심으로 1,0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영광=서희권 기자

담양군, '코로나19 극복 염원 담은 황금대나무 심기' 행사 개최

담양군은 제75회 식목일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의 염원을 담아 백진강 주변에서 식목일 기념 황금대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식목일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개최하는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황금대나무를 식재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장갑 착용, 체온측정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점검한 후 이뤄졌다.

매일 아침 백진공원을 찾는다는 한 마을주민은 "황금대나무 식재로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대숲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형식 군수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대나무의 곧은 의지처럼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며 "주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담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고흥군, 청년 CEO 마케팅 지원

고흥군은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가 지원 대상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구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시행

구례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총 사업비 106,400천원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 7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공고일 이전부터 구례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나 구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구례=박진호 기자